

베트남, 경제개황과 교역동향

1950년대 후반에 계획경제를 도입한 베트남은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장경제로 이행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베트남의 시장경제의 이행과정, 경제활동 현황, 그리고 한국과의 교역현황과 전망 등에 대해 정리한다.

1. 시장경제체제로 전환과정

베트남에서 계획경제의 문제점은 1970년대 말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경제체제 자체가 갖는 비효율성과 인센티브 결핍으로 인해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하고 되고 생산이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1980년 전후에 베트남 경제는 최악의 상태에 직면하게 되는데, 경제 전반에 걸쳐 생산량 저하, 높은 인플레이션, 무역수지 악화가 심화되고 대규모의 식량부족 사태로 100만 명에 달하는 해상경제난민(보트피플)이 발생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1981~82년 베트남 정부는 21개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정부통제가격을 유지하고,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가격지지의 폐지를 위한 조치를 단행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주요 품목에 대한 이중가격 문제는 더욱 심화되었기 때문에 1985년 가격과 임금, 화폐 부분에서 대폭적인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조정의 목적은 가능한 빨리 국가의 가격지지를 폐지하고 현재의 이중가격체제에서 탈피하여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단일가격체제로 전환하는데 있었다. 그러나 경제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없이 정부 임의로 시장가격을 조정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정책은 실패하고 말았다.

베트남 경제가 현재와 같은 시장경제체제를 갖추게 된 것은 1986년 이른바 도이모이(Doi Moi)라는 사회경제개혁을 추진하면서부터이다. 1986년에 개최된 제6차 베트남 공산당대회에서 모든 사회, 경제 분야에 적용되는 도이모이정책에 대해 발표하였는데, 이는 그동안 지속되어 왔던 중앙계획 경제체제를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여 국영기업, 협동농장, 개인 및 외국인 직접투자 간에 종합적인 경제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었다.

공산당대회의 방침은 ‘외국인투자법’(1987), ‘농업경제 및 경영체계 개편에 관한 정치국 결의 제10호’(1988), ‘개인 및 가구의 개발 육성에 관한 결의 제16호’(1989), ‘회사법’(1990), ‘민간기업법’(1990) 등으로 구체화되었다.

1991년에 개최된 제7차 공산당대회에서는 국가에 의해 운영되는 국영기업과 협동농장을 시장경제체제에 부합하는 형태로 변형하는 개혁을 단행하도록 결정하였다. 1996년의 제8차 공산당대회와 2001년의 제9차 공산당에서는 기존의 원칙과 방향을 재확인하며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향한 경제개혁을 가속화하도록 하였다.

개별경영을 허용하며 잉여생산물을 개별 생산자가 팔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출발한 도이모이 정책은 베트남 경제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정책실시 직후인 1980년대 후반에 식량자급이 이루어졌으며, 90년대에는 해외자본 유치를 통하여 연평균 10%에 달하는 경제성장을 이룩하며 경공업 분야에 제조업 기반이 조성되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변화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비즈니스 마인드를 확산시켜 시장경제가 뿌리내리게 되었다. 90년대 말 동남아의 외환위기는 베트남에 해외자본 유치의 필요성을 가중시켜 베트남 경제개방 일정을 앞당기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21세기에 들어 베트남은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제도적 환경을 재정립하여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통한 산업 내실화를 추구하고 있다. 2001년에는 미국과 무역협정 체결, 20년 이상 지속된 국제사회의 경제봉쇄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대외교역 확대를 목적으로 아세안 자유무역지대 구축에 참여하고 있다. 베트남경제의 글로벌화를 향한 일련의 작업은 베트남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이 실질적으로 완성되는 2005년 무렵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2. 경제활동 현황

베트남의 산업구조를 보면, 2003년 현재 총 GDP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제조건설업부문으로 전체의 40.0%이고, 그 다음 서비스업부문이 38.2%를 차지하고 있다. 농림수산업 부문이 차지하는 GDP 비중은 21.8%에 이르지만, 총 인구 중 농어가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77%가 되고, 경제활동인구 구성에서도 농림수산업 종사자의 비중이 2003년 현재 전체의 59.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베트남은 사회전반적으로 볼 때 아직 농업 중심국가라 할 수 있다.

표 1 2003년도 산업분야별 GDP 및 경제활동인구 구성

단위: %

구분	농림수산업	제조건설업	서비스업
GDP 구성비	21.8	40.0	38.2
경제활동인구구성비	59.0	16.4	24.6

자료: CIEM(2004), Vietnam's Economy in 2003

표 2 2003년도 소유관계별 GDP 구성

단위: %

구분	국영 섹터	민간 섹터	외국투자 섹터
GDP 구성비	38.3	47.7	14.0

자료: CIEM(2004), Vietnam's Economy in 2003

소유관계 중심으로 경제활동을 파악할 경우, 국영부문이 2003년 GDP의 38.3%, 민간부문이 47.7%, 외국투자부문이 14.0%를 생산하고 있는데, 외국 투자를 합한 민간부문 비율이 60%를 초과하고 있다.

경제성장을 보면, 개혁과 개방이 본격화된 2000년도 이후 매년 약 7%의 실질 GDP 성장을 이룩하고 있다. 특히 산업생산에 있어서는 자동차, 섬유, 가전, 디젤엔진 등이 성장을 주도하면서 2000년도 이후 연간 14~17%대의 안정적인 고도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임금수준을 보면, 2003년 6월 현재 임금소득자의 월평균 소득이 국가전체평균으로 775,000 VND(50\$)이고, 산업분야별로는 금융업 종사자의 월소득이 가장 높은 989,000 VND(64\$)이고 농림업부문의 월소득이 663,000 VND(43\$)으로 중하위 그룹에 속한다. 경영체의 소유형태별로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체 종사자의 월소득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국영기업체 종사자로 나타난다.

표 3 경제성장 지표

구분	2000	2001	2002	2003
경상GDP (억\$)	312	327	351	375
실질GDP성장율 (%)	6.8	6.9	7.0	7.1
산업생산 증가율 (%)	17.5	14.2	14.5	15.7

자료: Economist Intelligence Unit(2004), Vietnam Statistical Yearbook

표 4 경영체 형태별 월임금 수준

단위: 1,000 VND

구분	국영기업	협동조합	민간기업	개인경영체	FDI	혼합형	전체평균
월임금소득	855	642	756	614	927	854	775

자료: CIEM(2004), Vietnam's Economy in 2003

베트남의 대외 교역량은 1990년대를 통하여 연평균 28% 증가하였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도 연 10%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베트남의 주요 수입품목은 기계플랜트류, 석유화학 제품, 식물봉제 원자재, 철강제품, 플라스틱 원료이며, 수출품목은 원유, 섬유봉제 제품, 수산물, 신발, 농산물, 전기전자 부품, 수공업품으로 연간 교역량은 2003년의 경우 약 440억\$ 규모이다. 기계플랜트는 베트남의 공업화 진행에 따른 생산시설재 수요이며, 석유화학 제품은 자국 생산기반이 없음에 따른 불가결한 수입현상이고, 식물봉제 원자재류는 베트남내 외국 투자기업이 제3국으로 가공수출하기 위해 재료를 수입하는 경우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베트남의 수출에서 가장 비중이 큰 품목은 원유로 총 수출액의 20%를 점하며 (아시아 4위의 원유수출국), 그 외에 베트남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생산된 경공업 제품, 농수산물 등 1차산업 제품들이 주로 수출된다. 농산물에서 베트남은 세계시장의 주요 공급자 위치에서는 쌀, 커피 등을 수출하고 있으며, 특히 쌀에 있어서는 세계 2위의 수출국이 되고 있다.

베트남정부는 자국 경제의 거시적 방향을 수출 드라이브로 확정하고 2010년까지의 장기계획을 설정하였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01~2010년 기간동안 베트남의 연 14%의 수출신장을 이루어 2010년에 수출규모가 500억 달러에 이르게 하고, GDP를 착수연도의 2배로 증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세부 실행계획은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 있다.

(1) 베트남 제조업의 주력분야인 봉제, 신발 등의 수출량을 매년 15% 증가시켜 2010년까지 15억 달러 수준에 이르게 한다.

(2) 급격한 수출성장이 이루어지는 분야인 식품가공, 목재가공, 건설자재, 화학제품, 플라스틱, 일부 식품가공업은 분야별로 10~30% 대의 지속적인 수출증가를 유도하여 2010년에는 수출량이 5~10억 달러에 이르게 한다.

(3) 정보산업(IT) 관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부문을 수출 주력분야로 육성하여 현재의 10억 달러 이하 수준에서 2010년에는 수출액이 70억 달러에 이르게 한다.

(4) 수공업품 제조 등 기존의 노동집약형 산업분야도 현재의 증가속도를 유지하여 2010에는 수출액 15억 달러 수준에 달하도록 한다.

(5) 관광산업, 인력수출, 교통, 통신, 금융 등 서비스 분야의 육성을 도모한다. 특히 최근 급격한 증가를 보이는 인력수출을 적극 장려하여 2010년에는 연간 외화가득액이 45억 달러에 이르도록 한다.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1988~2002년 기간동안 3,663건에 걸쳐 391억 달러가 승인되었으며 투자기업의 국적은 한국 등 약 70개 국가에 달한다. 베트남의 외국인 직접투자에 관련한 제도는 1987년 12월 ‘외국인투자법’이 제정되어 1996년 11월 ‘신투자법’으로 개정되었으며, 베트남의 대외 경제개방이 가속화됨에 따라 2000년 5월 국제 상관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재차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00년 7월31일자 베트남정부 조례 No.24/2000/ND-CP 본문 및 부칙들은 현행 외국인 직접투자제도 운영의 법률적 근거가 되고 있다. 자본 및 기술의 독자적 기반이 미비한 상태에서 추진되는 베트남의 산업정책의 특성상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베트남경제의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으며,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2001년 베트남 국민총생산(GDP)의 14%, 공업생산의 34%, 수출의 22%가 FDI 부문에서 이루어졌으며 직접 고용된 인력만도 60만 명에 달하고 있다.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개시년도인 198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가 1998/9년 동남아 외환위기사 일시적인 감소현상을 보인 후, 2000년에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다. 2000년도 이전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경제봉쇄가 유지된 관계로 미국 및 서유럽 선진국의 베트남 진출이 제한된 상태에서, 대만, 홍콩, 싱가포르, 한국 등 아시아 인접국이 주축이 된 노동집약적 경공업 부문에 집중되었다. 2001년 12월에 발효한 미국·베트남 무역협정 이후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중국 등 세계경제 무대에서 영향력이 큰 국가들의 베트남 진출이 본격화되어 외국인 직접투자가 질적, 양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며, 투자국가 기업간 다국적 컨소시엄

이 형성되는 등 진출전략도 다양해지고 있다.

향후 베트남 시장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변수로는 아세안자유무역협정 (AFTA)이 있다. 이 협정에 따라 베트남은 2005년까지 총 수입상품의 97%에 대하여 수입관세를 5% 이내로 인하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베트남은 현행 6,500개 품목에 대해 적용하던 관세율 시스템을 2005년까지 총 1만800개 품목으로 확대시행하며, 거의 전 품목에 걸쳐 관세율의 대폭적인 인하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베트남은 2002년 말까지 AFTA 관세율 인하프로그램(CEPT)에 따라 5,500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20% 이하로 인하했으며, 이 중 65%에 해당하는 제품에는 5% 이하로 관세를 인하했다. 2003년에는 750개의 임시제외품목(Temporary Excluding List)을 포함, 2,250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이 인하될 예정이었으나, 내부 사정으로 연기되기도 하였다.

제품별로 보면 시멘트(40%→20%), 종이(50%→20%), 철강(40%→20%), 전자, 엔지니어링제품, 건축자재 등 그동안 정부로부터 내수산업 보호를 받아오던 품목에 대한 관세율 인하가 예정되어 있어 이들 제품을 생산하던 베트남 기업들의 치열한 시장경쟁이 예상된다. 이는 아세안 국가간 역내관세율 인하가 2006년까지 완료되면 아세안 국가 상호간 수출입에서는 5% 미만의 공동실효특혜관세(CEPT)를 누리게 되는 반면, 역외국가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로 인해 아세안 국가의 시장접근이 용이하지 않게 된다.

AFTA 관세 인하 프로그램은 베트남에 많은 이점을 가져오는 동시에 베트남 기업, 특히 대외경쟁력이 약한 중소기업에게는 커다란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또한 아세안 경제통합에 따라 비료, 제지, 차 등 그동안 베트남 정부의 시장보호를 받아오던 업종은 아세안 수입제품과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베트남 정부는 AFTA 가입에 따른 역내 경제통합에 대해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지 못한 내국기업의 도태라는 부정적 효과와 관

세인하에 따른 아세안 지역으로의 수출확대라는 긍정적 효과가 동시에 발생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베트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AFTA 이후에는 베트남의 WTO 가입이 예정되어 있어 2000년대에 들어 베트남시장의 역내경제권 및 세계경제권 편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3. 한국과의 교역동향

3.1. 수출입 현황

한국과 베트남의 총교역량은 2000년도에 최초로 20억불을 넘어선 이래 2003년에는 30억불을 초과하고 20억 5천만불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특히, 2001년에 미국과 베트남 간에 미·베트남 무역협정이 발효된 이후 한국기업의 베트남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이들 투자기업의 각종 설비류 및 기자재 등을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것이 교역 증가의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난다.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은 현지투자기업의 생산과 관련한 식물 등 섬유봉제원, 부자재, 수송 및 산업용기계류, 석유화학, 철강제품 등이며, 2003년도에는 이들 5개 품목군이 베트남 수출의 52%를 점유하였다.

표 5 한국·베트남 교역내역

단위: 백만\$

구 분	2001	2002	2003
수 출	1,732	2,240	2,561
수 입	386	470	511
무역수지	1,346	1,770	2,050

자료: 한국무역협회통계(KOTIS)

주요 수입품목은 수산물, 섬유제품, 농산물, 신변잡화, 전자부품 등으로

2003년도에 이들 5개 품목군이 대베트남 수입에서 60%의 비중을 점하였다. 그리고 수산물, 농산물을 제외한 섬유 및 직물제품, 전자부품 등의 수입은 현지 한국투자기업 생산제품의 역수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3.2. 수출 전망

2000년대 들어 베트남경제는 연평균 7% 대의 고도성장을 이룩하고 있어 전반적인 소득수준 증대에 따른 구매력 확대가 예상되는데, 이것은 한국에 대한 수입 증가로 이어질 여건이 조성되는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05년도 WTO 가입을 목표로 하는 베트남이 여기에 상응하여 점진적인 관세 인하를 추진하고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제도를 정비하게 될 것인 바, 이 또한 베트남에 대한 수출전망을 밝게 하는 것이다.

반면에 베트남의 아세안(ASEAN) 가입으로 아세안 공동관세율(CEPT)이 적용됨에 따라 한국제품의 수출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그리고 중국과 대만 등 경쟁국들의 상품 진출이 확대되고 있어 가격경쟁 및 품질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여기서 만약 한국과 베트남 간에 FTA가 체결된다면 교역여건은 크게 바뀌게 될 것이다.

(김수석 soosuk@krei.re.kr 02-3299-4284 한국농촌경제연구원)